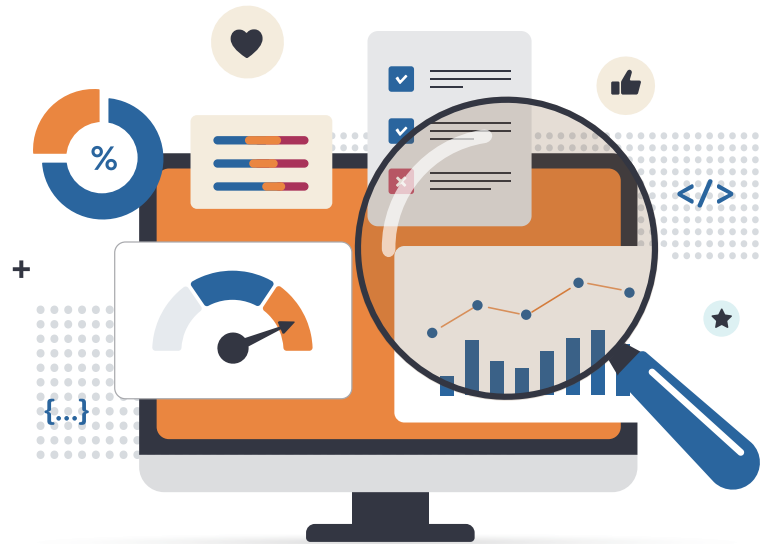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6. 28.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08



데이터로 확인한 전문대학 혁신과 학생 변화의 현장 중심 교육 성과

이수경 거제대학교 교수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성과관리위원장

-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2025년~2027년, 이하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표기)은 기존의 재정지원 중심 사업을 넘어, 전문대학이 산업·지역 수요 변화와 AI·DX 전환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산학협력, 학생지원, 성과관리 체계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3주기 1차년도 성과분석 결과, 전문대학은 재학생 총원율과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한편, 학생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전공 이해도, 직무역량, 자기주도성, 진로·취업준비, 대학 변화 체감도 등 학생 중심의 변화 성과가 확인됨

학령인구 감소, 지역산업 구조 변화, AI·DX 전환의 가속화는 전문대학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은 단순한 직업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성인학습자·재직자를 포괄하는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고등직업교육 재정지원사업이다. 특히 3주기 사업은 기존의 투입·산출 중심 성과관리를 넘어,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학생 중심·Outcome 중심 성과관리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추진 중인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정량지표와 재학생 1,268명 대상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혁신의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자율적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전문대학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고등직업교육 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러한 전문대학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지역 수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 미래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기반 차등지원 체계와 자율성·책무성의 조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지원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 교육혁신과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변화는 교육혁신 중심 성과평가, 학생 참여 확대, 학생 중심 성과관리 강화, 환류체계 고도화에 있다. 특히 교육혁신이 실제 학생의 학습경험, 직무역량, 진로·취업준비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어떻게 나타났나

전문대학의 주요 정량지표를 보면,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2024년 82.1%에서 2025년 82.4%로 0.3%p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대학 유형과 권역에 따라 개선 폭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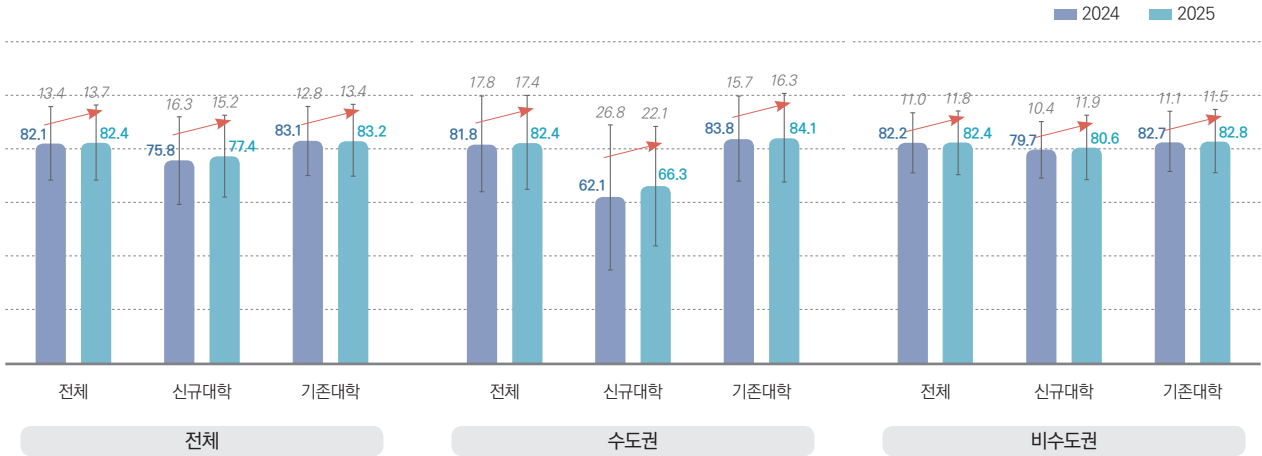
수도권은 81.8%에서 82.4%로 0.6%p, 비수도권은 82.2%에서 82.4%로 0.2%p 상승하였다. 특히 신규대학은 75.8%에서 77.4%로 1.6%p 상승해 기존대학보다 개선 폭이 컸고, 이 가운데 수도권 신규대학은 62.1%에서 66.3%로 4.2%p 상승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이는 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학생지원 강화, 대학 차원의 총원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체 표준편차는 13.4에서 13.7로 증가해 대학 간 충원율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즉 평균 지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향후에는 권역별·대학 유형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정원 내 재학생총원율(전체 및 수도권-비수도권) (130개 대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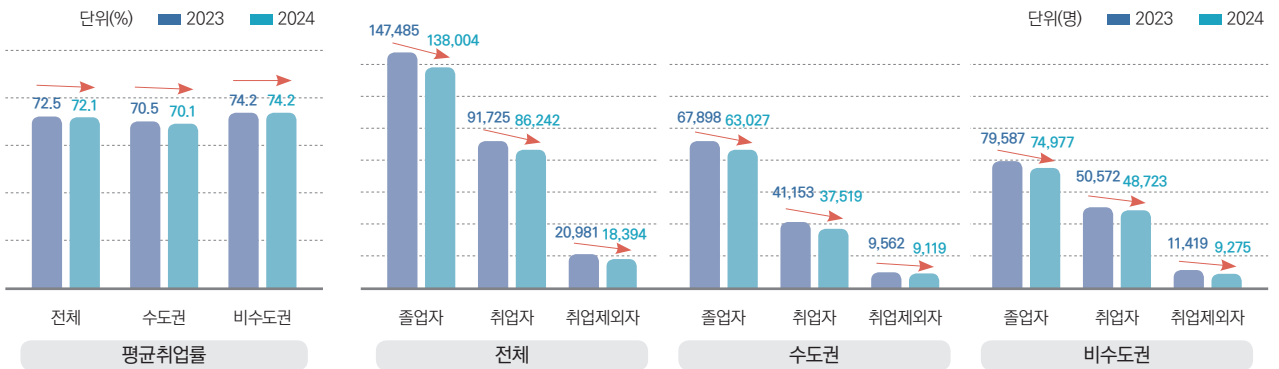
출처. 대학정보공시자료 라-1. 재학생 총원율 평균 재조직(전년도 하반기 10.1일자 / 당해연도 4.1일자 평균 재조직)

취업률 역시 전문대학의 핵심 성과지표이다. 전문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2023년 72.5%에서 2024년 72.1%로 0.4%p 소폭 조정되었으나, 장기화된 청년 고용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70.5%에서 69.6%로 0.9%p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74.2%를 유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다만, 취업률은 대학의 교육성과뿐 아니라 지역산업 구조, 노동시장 여건, 학과 구성, 졸업생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취업률 중심의 해석을 넘어, 유지취업률, 직무 적합도, 지역정주 취업, 전공-직무 연계성 등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적 성과관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취업률 분석 (130개 대학)

(단위: %, 명)



출처. 대학정보공시자료 5-다 졸업생의 취업률 평균 재조직(대학별 평균 계산이 아닌 졸업생 수 대비 제외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를 계산하여 취업률 재조직함. 표준편차)

학생들은 혁신지원사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학생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혁신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118개교 재학생 1,268명을 대상으로 학생변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학습경험 변화, 전공·직무 역량 인식 변화, 자기주도성 및 학습태도 변화, 진로·취업준비 인식 변화, 대학변화 체감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습경험 변화에서는 실습·프로젝트 중심 수업 경험이 전공 학습 흥미를 높였다는 응답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젝트·실습·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전공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81.8%에 달했다. 이는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된 현장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형 학습이 학생들의 전공 이해와 학습 몰입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학습경험 변화 응답결과

문항	긍정응답 (비율)	보통응답 (비율)	부정응답 (비율)	평균
1. 전공 수업에서 프로젝트·실습·현장 중심 학습을 경험하면서 전공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느낀다.	1,037명 (81.8%)	213명 (16.8%)	18명 (1.4%)	4.26 / 5.00
2. 실습·프로젝트 중심 수업 경험이 전공 학습 흥미를 높였다.	1,052명 (83.0%)	197명 (15.5%)	19명 (1.5%)	4.29 / 5.00
3.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캡스톤, 자격증, 창업,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958명 (75.5%)	280명 (22.1%)	30명 (2.4%)	4.14 / 5.00

전공·직무 역량 인식 변화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확인되었다. 전공 수업 또는 실습을 통해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1%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지원사업이 전공 이해를 넘어 실제 직무 수행 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전공·직무 역량인식 변화 응답결과

문항	긍정응답 (비율)	보통응답 (비율)	부정응답 (비율)	평균
1. 전공 수업 또는 실습을 통해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고 느낀다.	1,038명 (81.8%)	217명 (17.1%)	13명 (1.1%)	4.25 / 5.00
2. 산업체 프로젝트, 현장실습, 산업체 특강 등 산업 연계 교육을 경험을 통해 협업 역량이 강화되었다.	969명 (76.4%)	277명 (21.8%)	22명 (1.7%)	4.16 / 5.00
3. 수업에서 실제 문제 해결 활동(프로젝트·과제 등)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다.	1,029명 (81.1%)	221명 (17.4%)	18명 (1.4%)	4.23 / 5.00

자기주도성 및 학습태도 변화에서는 과제·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도 82.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 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자기주도성 및 학습태도 변화 응답결과

문항	긍정응답 (비율)	보통응답 (비율)	부정응답 (비율)	평균
1.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1,048명 (82.6%)	206명 (16.2%)	14명 (1.1%)	4.28 / 5.00
2. 전공 외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도전하려는 태도가 강화되었다.	1,019명 (80.4%)	229명 (18.1%)	20명 (1.6%)	4.25 / 5.00
3. 과제·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려는 책임감이 높아졌다.	1,066명 (84.1%)	192명 (15.1%)	10명 (0.8%)	4.32 / 5.00

진로·취업준비 인식 변화에서는 진로 방향이 구체화되었다는 응답이 74.1%, 취업 준비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3.5%, 현장실습 또는 산업체 연계 경험이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2%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긍정응답 비율은 다소 낮지만, 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진로·취업준비 인식변화 응답결과

문항	긍정응답 (비율)	보통응답 (비율)	부정응답 (비율)	평균
1.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 상담이나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939명 (74.1%)	293명 (23.1%)	36명 (2.8%)	4.12 / 5.00
2. 취업관련 프로그램(특강, 컨설팅, 취업캠프 등) 등을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933명 (73.5%)	302명 (23.8%)	33명 (2.6%)	4.10 / 5.00
3. 현장 실습 또는 산업체 연계 경험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	929명 (73.2%)	305명 (24.1%)	34명 (2.7%)	4.12 / 5.00

대학변화 체감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지원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78.8%,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지원사업이 개별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대학 차원의 교육서비스 개선과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대학변화 체감도 응답결과 대학변화 체감도


문항	긍정응답 (비율)	보통응답 (비율)	부정응답 (비율)	평균
1.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지원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느낀다	999명 (78.8%)	245명 (19.3%)	24명 (1.9%)	4.21 / 5.00
2.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994명 (78.3%)	257명 (20.3%)	17명 (1.3%)	4.22 / 5.00
3. 실습 시설, 학습 공간, 디지털 학습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느낀다.	956명 (75.4%)	274명 (21.6%)	38명 (3.0%)	4.16 / 5.00
4. 대학이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낀다.	974명 (76.8%)	268명 (21.1%)	26명 (2.1%)	4.18 / 5.00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분석 결과, 전문대학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변화와 대학 혁신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체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변화 분석 결과는 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전공 이해, 직무역량, 자기주도성, 진로·취업준비, 대학 변화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3주기 사업이 강조하는 학생 중심·Outcome 중심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평균 성과뿐 아니라 권역별·대학 유형별 격차를 함께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년별, 전공별, 취업준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학생성과와 대학 우수사례는 단순 홍보자료를 넘어, 타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의 AI·X 전환, 지역사회 연계 및 평생직업교육 기능이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지원과 지·산·학 거버넌스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제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이 현장 중심 교육과 지역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고등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